

완성차 업체들 '모빌리티 서비스' 투자

차량 공유 흐름 등 변화 대응 차원... 폭스바겐 택시 앱 벤처기업 투자 등 잇따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에 잇달아 출시표를 던지고 있다.

우버를 비롯한 차량 공유 서비스나 택시 앱 벤처기업에 잇달아 투자하는 등 서비스 부문으로 외연을 넓히며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차량 공유 등 자동차 시장에 거세게 부는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는 한편, 차세대 먹거리로 저출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4일(현지시간)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의 폭스바겐이 이스라엘의 택시 앱 서비스 벤처인 게트(Gett)에 3억 달러(약 357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아울러 게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미래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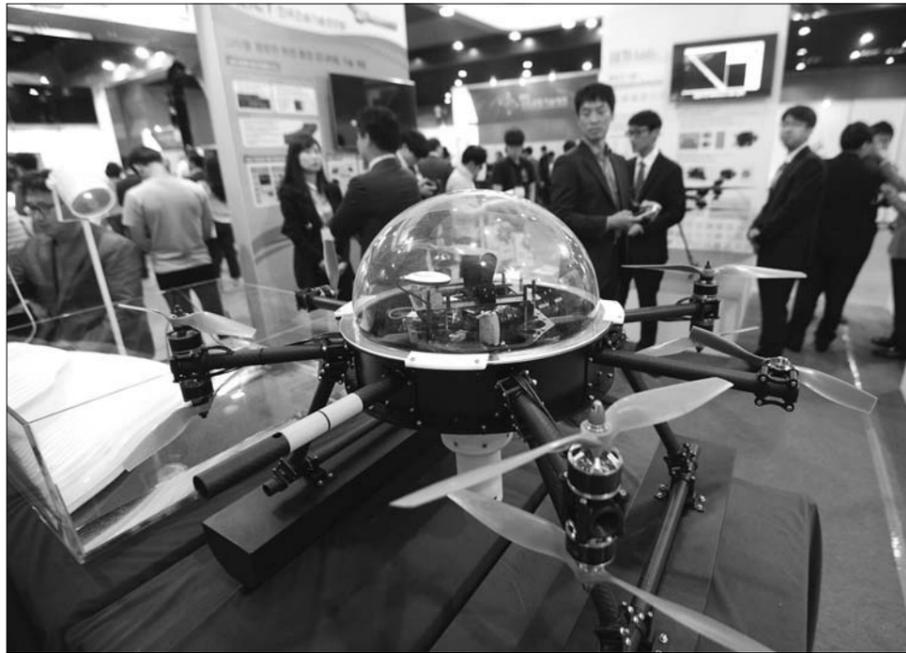
또 앞으로 ▲기업 고객들에게 게트 앱을 활용한 차량 탑승 서비스를 제공하고 ▲폭스바겐 택시 기사들에게는 할인을 해주는 내용 등에도 합의했다고 FT는 전했다.

마티아스 뮐러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파트너십은 폭스바겐이 통합 이동 서비스의 장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이정표"라며 "오는 2025년까지 이 분야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도요타자동차도 이날 미국의 차량공유서비스 업체인 우버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요타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우버 운전자들에게 도요타 차량 리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우버의 최고사업책임자(CBO)인 에



다양한 기술이 적용된 드론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6 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 참석자들이 드론 관련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드론 등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R&D)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16 국토교통기술대전'은 25일부터 사흘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다.

밀 미카엘은 "앞으로 도요타와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우선 승용차 파이낸싱(vehicle financing)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해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도 지난 1월 미국의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리프트(Lyft)에 5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략적 제휴 방안을 발표했다. 이밖에 중국의 광저우 자동차도 우버에 투자를 했다고 FT는 전했다.

FT는 완성차 업체들이 신생 벤처기업에 잇달아 투자하는 것은 거세지는 차량 공유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했다.

완성차 업체들은 이러한 차량 공유의 트렌드가 장기적으로 승용차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하며 그 흐름을 주시해 왔다.

한편, 미국의 애플도 앞서 지난 13일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滴滴出行)에 10억 달러(약 1조1190억원)를 투자하기로 한 바 있다. /인진수 기자

새마을금고 공익재단 출범

2025년까지 1000억 조성 취약계층 자립지원사업 등 추진

새마을금고가 2025년까지 1000억 원을 조성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가 창립 53주년을 맞아 사회공헌 활동 강화를 위한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새마을금고 공익재단)을 25일 출범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공익재단 출범으로 사회공헌활동 사업이 더욱 활발해지고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오전 홍문식 행정부 장관과 250여명의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새마을금고 창립 53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홍 장관은 새마을금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훈·포장 등을 수여하고 중앙회 임직원 등 참석자도 참여해 재단임원들과 함께 재단 출범을 축하했다. 공익재단 홍보대사로 새마을금고 광고모델인 탤런트 유호정씨가 위촉됐다.

홍 장관은 축사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 적극적인 지역사회공헌 사업과 함께, 시민 금융지원 확대에도 더욱 노력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새마을금고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트위터, 사진·영상 등 140자 산정 제외

트위터가 사진과 영상 등은 글자수로 산정하지 않기로 했다. 상징인 '140자 글자수 제한'은 유지되되 더 풍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트위터는 사진, 영상 등을 글자수로 산정하지 않기로 트윗 관련 정책을 완화했다고 25일 밝혔다.

글자수에 산정하지 않는 첨부 항목들은 사진, 동영상, GIF, 투표, 트윗 인용 등이다. 현재는 이 항목을 트윗에 포함시킬 경우 24자로 산정돼 트윗에 작성할 수 있는 글자 수가 116자로 줄었다. 한편, 이번 정책 적용은 수개월 뒤 또 다른 이용자의 트윗에 답글을 보

낼 때 맨 앞에 붙는 수신인의 계정명이 글자수로 산정되지 않는다.

단 링크는 스펠 등 어뷰징을 막기 위해 현재와 마찬가지로 글자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트위터를 이용한 대화를 직관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선도 이뤄진다.

다시 작성했던 트윗을 리트윗하거나 인용할 수 있게 되고 맨 앞에 특정 이용자의 이름을 언급한 댓글 형태의 트윗들이 모든 팔로워가 볼 수 있도록 타임라인에 노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책 적용은 수개월 뒤 이뤄질 예정이다. /인진수 기자

STX조선 채권단 법정관리 논의

중소건설사로 재도약을 꿈꾸던 STX 조선해양이 결국 법정관리 수순을 밟는다.

채권단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회의를 열고 STX조선의 법정관리 돌입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채권비를 75%가 동의할 경우 STX조선의 운명은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채권단은 ▲산은 ▲농협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4곳으로 구성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회의에 법정관리 안건이 공식으로 상정됐다"며 "의견을 취합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20대 노리는 대출빙자 보이스포싱 사기 기승

올해 1분기 보이스포싱 피해 전년 대비 15.9% 감소... 20대 피해건수는 10% 늘어

올 들어 취업난에 허덕이는 20대를 겨냥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부당이득을 챙기는 보이스포싱 사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이스포싱 피해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20대의 피해건수는 늘었다.

올 들어1~4월 월평균 피해건수는 3058건으로 전년 하반기 대비 15.9% 줄었다. 월평균 피해 금액은 전년 대비 19.9% 감소한 117억원으로 조사됐다.

금융원·경찰청·금융권의 현장 예방·검거 체계 시행과 예방 안내를 강화한 덕이다.

하지만 대출빙자형 보이스포싱에 노출된 20대는 전년대비 10% 늘었다. 1~4월 집계된 피해자 중 29세 이하는 1188명으로 1년 전보다 115명 증가했다.

고용불안 등으로 20대 청년들이 취업준비, 생활비 등을 위해 급전이 필요한 상황으로 몰리면서 대출빙자형 사기에 노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빙자형 사기의 경우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을 사칭하며, 실제 금융회사 콜센터와 유사한 전화

번호로 전화를 거는 경우가 잦았다. 전체 보이스포싱 피해금액 중 전통적인 수법인 정부기관 사칭형 비중은 46%에서 33%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피해가 줄어든 가운데 40대 이상 여성의 피해비중은 11%포인트 증가했다.

대포통장 발생건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4월 감소세로 전환했다.

1~4월 월평균 대포통장 발생건수는 3524건으로 전년 하반기(3678건) 대비 154건 줄었다. /인진수 기자

"구글 알파벳의 주 수익은 AI 기반 광고"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등 각종 혁신을 선도해온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주 수익원이 첨단기술이 아닌 광고수익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날 실적 발표가 이러한 사업구조를 앞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알파벳은 지난 1분기 광고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18%나 오른 180억 달러(약 21조4002억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같은 기간 총 수익(203억 달러·24조1346억원)의 88% 수준이다.

24일(현지시간) 슈미트 회장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스타트업 페스트'에서 "구글 알파벳의 주 수익

원은 언제나 광고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CNBC에 따르면 알파벳은 최근 첨단 기술과 같은 신규 시장에 사업을 확장하면서 광고시장에서 페이스북과 같은 다른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어떠한 광고수익을 내고 있다.

이는 알파벳이 개발 중인 AI가 광고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광고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AI개발에 힘을 더해주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정책 적용은 수개월 뒤 이뤄질 예정이다. /인진수 기자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